

군산시,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대상 수상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선정

부가소득 창출 기여 호평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2020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은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농업인 가공제품을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확대를 통해 농가 부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쌀조청 등 5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68개농가에서 53개 제품을 학교급식과 관내·외 6개 로컬푸드직매장, 4개 특산물판매장에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

공급식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지역내 소비순환 구축은 사업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내년도부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 가공 거점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푸드플랜과 연계해 농업인 가공제품들의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정일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 농촌융복합 경진대회 '대상'

공동체 사업 부문서 수상

지역 먹거리 선순환 인정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농부의 식품공장이 '2020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사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곳들은 농민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농민 가공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에서 이 시설들은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확대를 통해 농가 부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

한 공적이 인정돼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쌀조청 등 5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68개 농가에서 53개 제품을 학교급식과 관내·외 6개 로컬푸드직매장, 4개 특산물판매장에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을 공급중이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신동우 과장은 "내년도부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 가공 거점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푸드플랜과 연계해 농업인 가공제품들의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오 기자

전라매일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008면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대상'

군산시, 공동체사업 부문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2020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은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농업인 가공제품을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확대를 통해 농가 부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쌀조청

등 5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68개농가에서 53개 제품을 학교급식과 관내·외 6개 로컬푸드직매장, 4개 특산물판매장에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급식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지역내 소비순환 구축은 사업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내년도부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 가공 거점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전민일보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대상'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을 수상한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농업인 가공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68개 농가에서 53개 제품을 학교급식과 관내·외 6개 로컬푸드 직매장,

4개 특산물 판매장에 공급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급식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내년도부터 센터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 가공 거점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푸드플랜과 연계해 농업인 가공제품들의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